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무용 작품 「Less in more」에 관한 연구



2016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손승원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인숙

무용 작품 「Less is more」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eative Dance Work, 「Less is more」



2015년 12월 일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손승원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인숙

무용 작품 「Less is more」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eative Dance Work, 「Less is more」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손승원

손승원의 무용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일



HANSUNG
UNIVERSITY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무용 작품 「Less is more」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손 승 원

본 연구는 ‘더 적을수록 많다’라는 주제로 「Less is more」이라는 작품을 연구하고 표현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며, 주제에 자신의 외모가 기형적이라고 잘못된 집착과 망상을 이르는 심리학 용어인 신체변형장애(Body dysmorphic disorder)에 비유하여 욕심과 욕망, 집착이라는 공통점을 모색하였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가꾸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생각해보며, 내 자신의 ‘Less is more’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Less is more’란,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말한 글이며,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적을수록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자의 무용 작품을 토대로 해석하자면 ‘욕심을 버린다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겠다.

나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항상 ‘Less is more’를 생각하며, ‘더 많은 것을 바래 더 많은 것을 잃는다.’라고 해석 할 수 있는 ‘More is less’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주요어】 조명, 욕망, 망상, 집착, 신체변형장애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3
III. 작품개요	5
3.1 작품내용 및 작품의도	5
3.2 작품의 형식 및 구조	6
3.3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7
IV. 작품의도	12
4.1 1장 : 욕심에 대한 호기심과 이끌림	12
1) 내용 및 안무의도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 음악	
4) 무대장치 및 조명	
4.2 2장 : 지배 되어지는 본질	16
1) 내용 및 안무의도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 음악	
4) 무대장치 및 조명	

4.3 3장 :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21
1) 내용 및 안무의도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 음악	
4) 무대장치 및 조명	
 V. 결 론	25
 참고문헌	27
부 록	28
 ABSTRACT	30



표 목 차

<표 1> 작품구조	6
<표 2> 움직임 표현방법	7
<표 3> 음악구성	10
<표 4> 1장 작품구도	14
<표 5> 2장 작품구도	18
<표 6> 3장 작품구도	23
<표 7> 공연 프로그램 요약	28



사 진 목 차

<사진 1> 의상	8
<사진 2> 소품	11
<사진 3> 욕심에 대한 호기심의 이끌림 1	12
<사진 4> 욕심에 대한 호기심의 이끌림 2	13
<사진 5> 욕심에 대한 호기심의 이끌림 3	13
<사진 6> 지배되어지는 본질 1	16
<사진 7> 지배되어지는 본질 2	17
<사진 8> 지배되어지는 본질 3	17
<사진 9> 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1	21
<사진 10> 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2	22
<사진 11> 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3	22
<사진 12> 팜플렛 1	29
<사진 13> 팜플렛 2	29

I. 서 론

본 연구는 ‘더 적을수록 많다’라는 주제로 「Less is more」이라는 작품을 연구하고 표현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며, 심리학 용어인 신체변형장애 (Body dismorphic disorder)에 욕심과 욕망, 집착, 망상이라는 공통점을 모색하여 현대무용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신체변형장애는 자신의 외모가 기형적이라고 생각하여 잘못된 집착과 망상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인지적인 사고를 고쳐야 벗어날 수 있는데 보통은 자신의 외모가 타인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을까 괴로워하며,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고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며 심각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빈번하게 거울을 보거나 확대경을 사용하여 신체적 결함을 세심하게 관찰하거나 자신의 외모를 과도하게 치장하는 행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사회적 또는 직업적 적응에 심각한 장애를 받을 수 있다.¹⁾

대부분의 신체변형장애 환자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찾는 경향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100% 만족하며 살 수는 없겠지만, 신체변형장애 또한 자기가 만들어낸 욕심과 망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 평생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 아닐까?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가꾸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생각해보며, 내 자신의 ‘Less is more’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Less is more’란,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말한 글이며,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적을수록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자의 무용 작품을 토대로 해석하자면 ‘욕심을 버린다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다.

1) hosting03.snu.ac.kr 서울대학교 임상·상담 심리학 연구실

나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항상 ‘Less is more’를 생각하며 ‘더 많은 것을 바래 더 많은 것을 잃는다’라고 해석 할 수 있는 ‘More is less’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본 연구자는 욕심과 욕망, 망상, 집착에 대한 움직임과 표현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며, 무용수의 의상과 소품인 풍선의 사용을 통하여 신체에 대한 기형적, 변형적 장애와 욕심과 욕망을 비유하여 작품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무용창작 작품 「Less is more」에 관한 작품분석으로서,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I 장은 서론으로서 작품의 주제와 내용, 안무의 의도와 연구과정을 다루었으며, II 장은 신체변형장애의 이론적배경을 정리하였다. III 장에서는 작품의 형식 및 구조와 작품의 전반적인 구성요소를 정리하였으며, IV 장은 작품분석으로서 각 장면마다의 내용과 안무의도, 구성요소와 표현방법을 정리하였다. 마지막 V 장의 결론에서는 창작과정의 연구를 통해 느낀 점, 한계 점, 보안 점을 다루었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애를 가진 대부분의 개인은 그들의 가정된 결함 때문에 현저한 고통을 경험한다. 하루에 수 시간씩 그들의 결함을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소모하며, 이러한 생각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할 정도까지 이른다.²⁾

본 연구자의 작품 「Less is more」은 욕심에 대한 욕망, 집착, 망상을 심리학 용어인 신체변형장애에서 공통점을 모색하였으며, 신체변형장애의 배경을 바탕으로 현대무용에 대한 움직임을 분석하고 표현하고자 시도했다.

신체변형장애(Body dysmorphic disorder)는 자신의 외모나 신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를 말한다.³⁾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콤플렉스나 많은 불만을 느끼기도 한다. 신체변형장애는 이러한 일상적인 정도를 넘어서 용모나 신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사회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의 심리성적 발달과정에서 특수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과 상징적인 연관성을 지닌 특정한 신체 부위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무의식적인 성적 또는 정서적 갈등이 신체부위에 대치되어 나타나는 것이다.⁴⁾ 신체변형 장애 환자들은 신체적 기형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여 신체적 망상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신체 변형장애를 지닌 사람은 반복적인 외현적 행동(예: 거울 보며 확인하기, 지나치게 몸단장하기, 피부 벗기기, 안심 구하기)이나 내현적 행위(예: 자신의 외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나타낸다.⁵⁾

본 연구자는 신체변형장애의 특성과 반복적인 행동적 특징을 토대로 신체변형장애를 현대무용의 무용동작들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2) 최정윤(2015), 『이상심리학(3판)』, 출판도시:학지사, p.179.

3) 고영건 외(2008), 『이상심리학』, 출판도시:학지사, p.356.

4) 최정윤(2015), 『이상심리학(3판)』, 출판도시:학지사, p.180.

5) 권석만(2014), 『이상심리학의 기초』, 출판도시:학지사, p.92.

본 작품에서의 욕망과 집착을 소품인 풍선과 의상, 특성이 다른 두 무용수들의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Ⅲ. 작품개요

3.1 작품의 내용 및 의도

- 안 무 : 손 승원
- 출 연 : 손 승원, 이 다솜
- 음 악 : 강 태원
- 소 품 : 헬륨풍선, 투명한 작은 풍선주머니
- 작품시간 : 약 15분

넘치도록 구겨 넣고, 원하고 더 원하니

과식으로 소화되지 않은, 짝 들어찬 답답함만 남을 뿐이더라.

많은 걸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충족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견디기에 더 목이 마르고 힘들다.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고 원하니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

내가 아닌 것에 자꾸 지배되어 지는 것.

사람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다.

정작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잊어가며, 잃어간다.

‘Less is more’ 작은 것이 많은 것이다. ‘욕심을 버린다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라고 해석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Less is more를 생각하며, More is less(더 많은 것을 바래 더 많은 것을 잃는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한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생각해보며, 내 자신의 Less is more를 생각해본다.

3.2 작품의 형식 및 구조

본 연구자는 작품 「Less is more」에서 욕심을, 사람이 식탐을 내어 음식을 먹는 모습에 초점을 두어 ‘유혹에 이끌리다, 과식하다, 체하다’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로 움직임 방법 및 형식을 갖추고자 하였으며, 주제에 작품의 구조는 3장으로 구분된다.

<표 1>로 작품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작품구조

장면	이미지	표현방법	시간
1장	욕심에 대한 호기심과 이끌림	풍선을 사용한 컨택움직임, 시선과 공간의 사용	5분
2장	지배되어 지는 본질	A- 직선, 부드러운 움직임 B- 곡선, 스타카토 움직임 A움직임이 B움직임화 되며, 솔로움직임에서 듀엣움직임	6분
3장	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불편하고 답답하고 무거운 움직임과 본질을 찾음	4분

소품으로 사용한 풍선은 욕심과 망상을 의미하며, 음악에도 풍선을 부는 소리와 바람소리의 효과음, 피아노 소리를 통하여 욕심에 유혹당하며 지배당하는 모습을 그리고자 하였다. 마지막 장면은 무용수가 풍선을 찾아감으로써 작품의 의도인 ‘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하였다.

3.3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1) 움직임 표현방법

‘본질’을 뜻하는 A무용수의 움직임과 ‘욕심’을 뜻하는 B무용수의 움직임에 차이를 두었으며, ‘본질’은 직선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욕심’은 곡선과 스타카토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였다.

또한 B무용수는 욕심과 욕망을 뜻하는 작은 풍선들이 들어있는 큰 주머니를 입에 물고 하체중심의 움직임을, A무용수는 상체중심의 움직임을하고자 하였으며, 사람의 욕심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풍선을 소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두 무용수와 소품인 풍선을 사용한 바디 컨택트(body contact)를 통해 작품 전반적인 이미지와 상징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표 2> 움직임 표현 방법

동기	표현방법	기대효과
방향(Direction)	시선과 신체의 방향	시선과 신체의 방향을 통하여 바라고 원하는 욕심에 대한 집착과 두 무용수간의 입체감과 움직임의 대조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모양(Shape)	직선과 곡선 부드러움과 스타카토 하체와 상체	두 무용수의 대조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본질과 욕심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공간(Space)	본질과 욕망의 공간	본질과 욕망의 공간을 분리시켜 공간을 이동하며 움직임을 할 때, 심리적 상태의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2) 의상

본 작품에 있어서 의상은 두 종류가 사용되었으며, 무용수A(본질)원피스를 무용수B(욕심)은 상의와 하의로 정하였다. 두 무용수의 의상은 기하학적인 패턴이 있는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원단의 패턴은 사람의 내면의 욕심, 욕망, 집착, 망상의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투명한 풍선과의 대조적인 색감을 나타내기 위해 의상은 검정색 색상을 선택하였으며, 본질을 나타내는 무용수의 의상은 검정색 치마 안에 청색패턴의 원단을 덧대어 제작하였다. 속 안에 있는 청색의 색상은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욕망 억제된 행동을 상징하는데 의미를 두었으며, 3장에서의 욕심을 극대화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사진 1> 의상 (좌- 무용수 B / 우- 무용수 A)

3) 조명

작품의 색을 입히는 작업인 조명은 작품의 이미지와 각 장의 전환마다 조명의 변화의 초점을 두었으며, 투명 풍선과 검정색 의상에 맞추어 무채색 계열로 조명의 컬러감을 최소화하였다.

전체적인 작품의 조명은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무용수들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빛을 추가하였다. 1장에서 본질이 욕심에 이끌리며, 호기심을 보이는 장면에서는 탑조명(top light)를 사용하여 집중의 효과를 주고자 하였으며, 2장에서 본질과 욕심에 대한 공간의 포인트를 조명을 달리 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본질에 대해서는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자 주황빛 색을 사용하였으며, 욕심에 대해서는 고보(Gobo)를 사용하여 심리적인 갈등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다.

작품 안에서 보여주는 작품의 움직임과 공간의 포인트를 전측광(front light)과 후광(back light), 고보(Gobo) 조명으로 강조하여 작품의 이미지를 쉽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4) 음악

작품에 있어서 음악은 그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과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본 연구자의 작품 속 음악은 풍선을 불 때 나올 수 있는 소리, 풍선 바람소리, 피아노 멜로디 등 효과음을 사용하였으며, 직접 녹음해 만들었다.

풍선소리는 욕심에 대한 욕망, 망상, 집착의 의미를 암시하며, 피아노소리는 풍선소리와 맞물려 움직임의 이미지를 과장시키며, 욕심의 심리적인 변화에서 신체적 변화를 전환하는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작품의 주된 풍선소리의 사용은 작품의 소품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며, 관객들에게 작품의 특징을 선명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표 3> 음악구성

	음악	효과
1장	풍선 바람 소리	호기심, 유혹, 이끌림
2장	풍선 바람 소리, 피아노 멜로디	욕망, 망상, 집착, 지배
3장	빠른 템포의 피아노 멜로디와 풍선 바람 소리	답답함, 넘침, 본질

5) 소품

본 작품에 있어서 풍선은 욕심과 집착, 망상을 의미하며 원하면 원할수록 커져만 가는 욕심에 대한 크기와 형태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여 소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고 원하고 가지려고 할수록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 충족하고 난 후에는 많은 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정작 소중한 건 놓쳐버리게 되는 그 무언가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떠오르려고 하는 헬륨풍선을 사용함으로써 작품의 의도 및 내용을 다양한 각도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사진 2> 소품

IV. 작품의도

4.1 1장 : 욕심에 대한 호기심과 이끌림



<사진 3> 욕심에 대한 호기심과 이끌림 1

1) 내용 및 안무의도

욕심의 모습을 자신의 외모가 기형적이라고 잘못된 집착과 망상을 하는 신체변형장애(Body Dismorphic Disorder)의 모습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욕심과 망상의 의미로 풍선을 소품으로 사용하여 움직임의 만들어 내었다.

풍선을 입에 물고 몸과 가까이 밀착시키는 행위로서 욕심과 기형의 시각적인 효과를 의도하였으며, 1장에서는 소품과 두 무용수들의 바디 컨택트(body contact)로 하여금 호기심에 유혹당하며, 욕심의 호기심에 이끌리는 모습을 의도하였다.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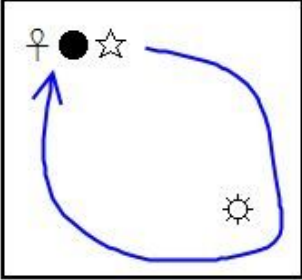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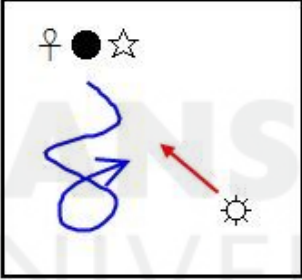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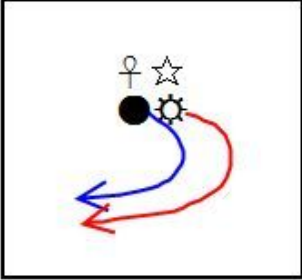
<사진 4> 욕심에 대한 호기심과 이끌림 2



<사진 5> 욕심에 대한 호기심과 이끌림 3

<표 4> 1장 작품구도

※=무용수A(본질) ●=무용수B(욕심) ♀=헬륨풍선 ☆=풍선주머니

구성	장면	이동경로	장면해설
1장			무용수 B(욕심)가 욕심을 상징하는 풍선소품을 입에 물고, 무용수 A(본질)의 주위를 맴돌며 유혹하기 시작한다.
			무용수 A(본질)이 무용수 B(욕심)에 호기심을 보인다.
			무용수 A(본질)이 무용수 B(욕심)에게 유혹당하여 끌리며, 풍선을 사용하여 두 무용수들의 바디 컨택트가 이루어진다.

희망을 뜻하는 무용수A(본질)가 downstage left에 등장해 있으며, 어두움을 뜻하는 무용수B(욕심)가 upstage right에서 욕심과 망상, 집착을 상징하는 풍선주머니를 입에 물고, 헬륨풍선을 가지고 등장한다.

무용수B는 무용수A의 주변을 맴돌며, 유혹하는 듯한 움직임의 곡선적인 모양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무용수A는 호기심에 이끌리는 듯한 움직임을 직선적인 모양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풍선주머니와 헬륨풍선의 사용으로 인해 움직임의 제한을 받으며, 무용수 A(본질)는 상체의 움직임, 무용수B(욕심) 하체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어 움직임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3) 음악

무용수 B가 무용수 A를 지나 무대를 한 바퀴 크게 돌고, 오른쪽 상수 up stage right에 도착했을 때, 음악이 시작된다. 풍선을 부는 소리, 풍선 바람소리에 따라 움직임의 크기가 같이 변화되며, 바람소리와 함께 피아노 멜로디 소리가 들릴 때, 두 무용수의 신체의 방향과 공간의 움직임이 더 확장된다.

4) 무대장치 및 조명

무용수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조명이 서서히 비추어지며 무대공간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후광(back light) 조명에서부터 전측광(front light) 조명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며, 두 무용수가 무대중앙stage center에서 만나서 움직임이 진행될 때는 큰 탑조명(top light)을 이용하였다.

4.2 2장 : 지배되어지는 본질



<사진 6> 지배되어지는 본질 1

1) 내용 및 안무의도

욕심을 부리니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게 되고 원하고 원하니 자꾸만 욕심이 생기게 되어 어느새 욕심에 지배되는 과정을 두 무용수 간의 움직임이 질적으로 같아지는 것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욕심과 본질의 공간을 나누어 두 무용수의 움직임의 방법을 다르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풍선을 사용하여 욕심과 본질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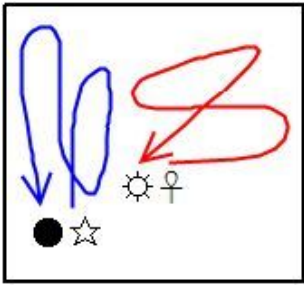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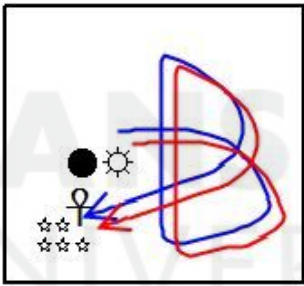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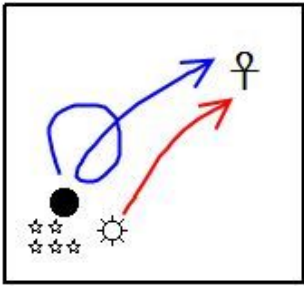
<사진 7> 지배되어지는 본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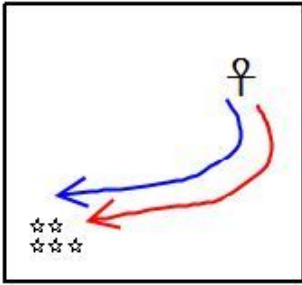


<사진 8> 지배되어지는 본질 3

<표 5> 2장 작품구도

※=무용수A(본질) ●=무용수B(욕심) ♀=헬륨풍선 ☆=풍선주머니

구성	장면	이동경로	장면해설
2장			무용수 A(본질)와 무용수 B(욕심)의 공간이 나누어지며, 곡선과 직선, 스타카토적 움직임과 부드러운 움직임의 다른 성격의 움직임이 진행된다.
			무용수 B(욕심)가 풍선을 떨어트릴 때 음악이 점점 더 고조되며, 두 무용수들의 공간과 움직임도 확대된다.
			무용수 B(욕심)가 끊임없이 무용수 A(본질)를 유혹하고 지배하고자 하며, 무용수 A의 동선을 따라다닌다.

			<p>무용수 A(본질)의 움직임이 무용수 B(욕심)화되어지며, 직선과 부드러운 움직임에서 곡선과 스타카토적인 움직임으로 변해간다.</p>
--	-----------------------------------------------------------------------------------	-----------------------------------------------------------------------------------	------------------------------------------------------------------------------

무용수 B는 upstage와 downstage의 공간을 사용하여 앞뒤로 이동하며, 곡선과 스타카토적 움직임으로 욕심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무용수 A는 stage right와 stage left의 공간을 사용하여 좌우의 움직임으로 이동하며, 직선과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본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음악이 고조됨에 따라 본질의 욕심이 점차적으로 커지며, 본질이 욕심화되어진다. 이에 따라 무용수 A의 움직임이 직선과 부드러움에서 곡선과 스타카토적인 움직임으로 변해간다.

3) 음악

1장에서 서서히 나왔던 풍선소리와 피아노소리의 볼륨감이 더 커졌으며, 한 옥타브 높은 피아노 소리의 리듬과 액센트가 더해져 긴박함과 긴장감을 더해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음악의 변주가 많아지고 비트에 맞춰 두 무용수들의 움직임도 고조된다.

4) 무대장치 및 조명

두 무용수들이 풍선을 하나씩 가지고 떨어지면서부터 조명을 통하여 두 무용수들의 공간이 분리된다. stage right에는 고보(Gobo)를 사용하여, 욕심에 대한 욕망, 집착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stage left는 채도를 뻗은 은은한 주황색 조명을 사용하여 본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무용수 A가 헬륨풍선을 downstage right에 놓으면 전체조명이 비추면서 분리되어 있던 공간이 없어진다,

무용수 B가 풍선주머니에 있는 풍선을 바닥에 다 떨어트리지는 것은 무용수 A의 욕심과 욕망이 점점 더 커져 지배되는 것을 암시하고자 하였으며, 무용수 A가 가지고 있는 헬륨풍선이 계속 뜨려고 하는 것 또한 본질의 변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4.3 3장 : 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사진 9> 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1

1) 내용 및 안무의도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느꼈는데, 충족하고 난 다음에는 더 힘이 든다. 욕심을 부려 구겨 넣고 구겨 넣었는데, 도리어 답답하고 넘치고 내가 아닌 것에 자꾸 지배되어지는 것을 느낀다.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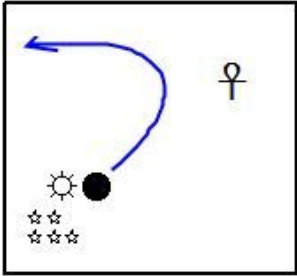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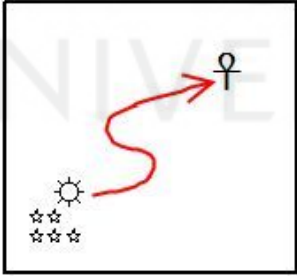

<사진 10> 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2



<사진 11> 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3

<표 6> 3장 작품구도

※=무용수A(본질) ●=무용수B(욕심) ♀=헬륨풍선 ☆=풍선주머니

구성	장면	이동경로	장면해설
3장			욕심을 상징하는 무용수 A(본질)의 속 치마를 무용수 B(욕심)가 무용수 A의 어깨에 덮어주고 퇴장한다.
			무용수 A는 속치마 안에 떨어져 있는 욕심(풍선)들을 구겨 넣는다.
			움직임이 불편해질 정도로 욕심이 가득차서 흘러넘치게 되며, 결국 많은 욕심의 것들을 다 버리고 가장 소중한 하나(헬륨풍선)만 끌어안는다.

풍선을 의상에 가득 담고 또 담아 욕심의 과함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신체의 기형적인 모습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발끝으로 서서 비틀거리는 움직임을 욕심이 가득차서 견디고 버티기 힘들음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에 큰 헬륨풍선을 끌어안음으로써 ‘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라는 표현하고자 하였다.

3) 음악

3장에서는 2장의 피아노멜로디 2개와 풍선소리가 계속해서 고조되어가다가 점차적으로 음악의 볼륨감이 감소하게 된다. 엔딩에 다다를 때는 처음에 나왔던 풍선 부는 소리가 무음사이에 나오며, 작품이 끝날 때까지 긴장감이 연속된다.

4) 무대장치 및 조명

무용수 B가 퇴장하고, 무용수 A가 옆드려 쓰러져있는 downstage right에는 다시 고보(Gobo)가 사용되며, 조명의 밝기는 70%이며, upstage left의 헬륨풍선의 조명의 밝기는 30%이다. 무용수 A가 up stage left의 헬륨풍선 쪽으로 이동할 때, downstage right의 고보(gobo)는 사라지고 조명이 점차 암전되며, 후광(back light)을 이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였으며, 무용수 A가 헬륨풍선 밑에서 풍선을 끌어안으면 조명은 서서히 암전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무용 창작 작품 「Less is more」에 관한 작품 분석으로, 심리학 용어인 신체변형장애(Body dysmorphic disorder)에 욕심과 욕망, 집착이라는 공통점을 모색하여 현대무용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모든 욕심과 욕망은 자기가 만들어낸 망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란 외면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아름다움과 자신에게 있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윤곽하게 가꾸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작품은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결론을 바탕으로 보다 자유로운 표현 형식으로 무용 예술로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자는 삶을 비추어 봤을 때, ‘더 많은 것을 바래 더 많은 것을 잃는다’라고 해석 할 수 있는 ‘More is less’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하며, ‘Less is more’를 생각하게 되었다.

작품의 안무를 준비하면서 오브제의 다양한 표현 방법과 움직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특히 작품을 연습하는 과정과 실제 공연에서의 예기치 못한 소품사용의 문제점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본 작품에서 욕망과 집착을 상징했던 소품인 헬륨풍선의 사용은 연습실에서 연습하면서 사용했을 때와는 달리 무대에 올라갔을 때 많은 위험요소가 뒤따랐다. 헬륨풍선의 끈을 놓치면 풍선이 천장으로 뜨기 때문에 조명기에 닿으면 터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풍선이 위로 뜨지 못하게 추를 달아놓는 작업을 했으며, 헬륨을 넣은 풍선의 무게와 추의 무게가 더해져 움직임을 하는 데에 있어 움직임이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하지만, 움직임이 제한되는 모습이 무용수가 망상에 지배당하는 효과로 비춰졌기를 기대해본다.

본 작품을 안무하면서 표현방법에 대한 개선과 작품구성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으며, 작품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한 기승전결을 이끌어 나가는

것과 움직임의 표현방법과 각 오브제를 통하여 관객에게 작품의 주제를 전달해야 함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랐지만, 앞으로의 예술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 보다 나은 무용인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이해가 아닌 ‘소통’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예술 활동에 있어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고영건 외(2008). 『이상심리학』. 출판도시:학지사.

권석만(2013). 『현대이상심리학』. 출판도시:학지사.

권석만(2014). 『이상심리학의 기초』. 출판도시:학지사.

안진환(2015). 『버려야보인다』. 카스오페아.

어경준(2012). 『무대조명핸드북』. 비즈앤비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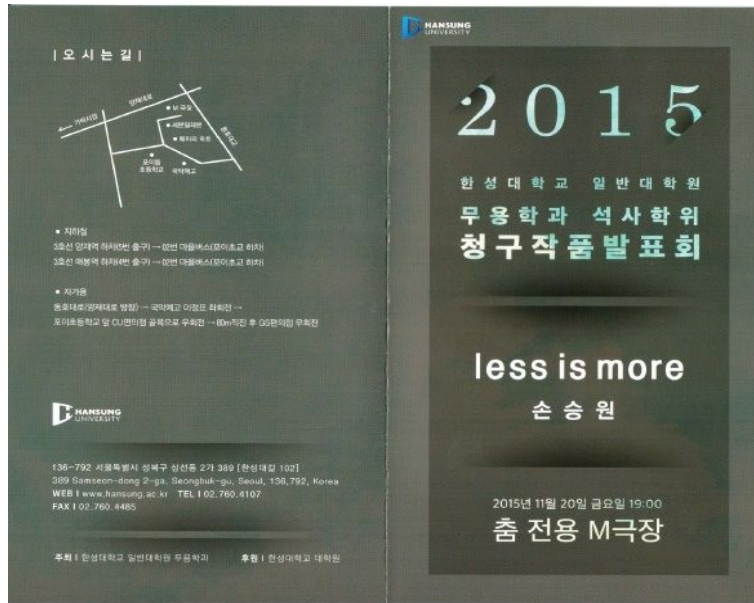
조영은(2013). 『왜 나는 늘 허전한 걸까』. 서울메이트.

최정윤(2015). 『이상심리학(3판)』. 출판도시:학지사.

부 록

<표 7>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Less is more
일시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오후7시
장소	양재 M극장
안무자	손 승 원
출연진	손 승 원, 이 다 슌
의상디자인	손 승 원
음악	강 태 원
무대감독	김 인 식
조명감독	김 병 수



<사진 12> 팜플렛 1



<사진 13> 팜플렛 2

ABSTRACT

A Study on the Creative Dance Work, 「Less is more」

Son, Seung-Won

Major in Dance Perform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is under the theme 'a lot less, the more' 「less is more」, studying the work to find the representations that, and that her appearance on the subject is distorted, Misguided obsession and delusion that extends to the psychological term, compared the Body dysmorphic disorder (body dysmorphic disorder) in search of the common threads of greed and desire, obsession.

True happiness for himself if he is beautiful and we should work hard, part love herself, looking more to it in abundance.

This research provides really a good life, my own, watching and think about the value of 'less is more' We tried to think about.

'less is more' Mies van der rohe, Literal translations of writings and, literally a famous architect says to have the effect that There is a lot less.

This study of interpretation of a dance work based on 'greed for more if you obtain' can do it.

hine on my life, always 'less is, and the fact ' more' when we see more to

lose more to lose. 'Analysis can do that' more is less ' of life He tried any idea that if it were living thing was not.



【key words】 Lighting, Desire, Delirium, Obsession, Body dysmorphic disorder